

생각과 생각을 모아
더 좋은 생각을 만들고
너와 내가 만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소통이 펼쳐집니다.



COVER STORY

이번 호 세아가족 표지는
CGL에 사용되는 소재를 적재하는 Full Hard(F/H) 야드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아연 도금 공정을 위해 대기 중인 코일의 모습이
아름드리 나무의 나이트처럼 보이지 않나요?

작은 동그라미 위에 큰 동그라미가 겹겹이 쌓일수록
코일도 조금씩 더 크고 탄탄해집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해 지혜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견해가 모여 더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소통처럼 말이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한 뼘 더 다가가는 진실된 마음,
반대 의견이나 가치관의 차이도 크게 감싸 안는
존중과 포용이 우리를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합니다.
조금씩 믿음이 쌓이고, 점점 더 탄탄해지는
세아인들의 소통이 봄빛 속에서 따스하게 펼쳐집니다.

SECTION 1

희망 더하기

- 04 - 11 **스페셜 칼럼**
SSA 이병준 회장
- 12 - 15 **테마 토크**
세아가족 사보 기자들의 만남
- 16 - 19 **테마 스토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소통
- 20 - 25 **세아 포커스**
2018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Global Challenge Program
- 26 - 29 **글로벌 리포트**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SECTION 2

마음 나누기

- 30 - 33 **팀플레이**
세아씨엠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은상 수상 TF팀
- 34 - 37 **철의 장인**
세아제강 포항공장 생산1팀 송상열 팀장
- 38 - 41 **세아 로드**
창원 진해
- 42 - 45 **원데이 클래스**
선인장 가드닝 체험
- 46 - 47 **헬스케어**
목·어깨 운동
- 48 - 49 **세아 뉴스**
- 50 - 51 **사우동정 / 독자엽서**

발행일 2018년 4월 20일(통권 374호)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기획·디자인** (주)더윤호 02 733 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 464 6161 **사진** B.A.M Studio 02 548 1026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념의 발자취에서 100년 세아의 이정표를 찾다

SSA 이병준 회장

산업의 불모지에서 강관 제조 사업을 일으킨 해암(海巖)의 위대한 노정. 그 곁에는 늘 이병준 회장이 있었다.
해암 이종덕 회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오늘날 성장의 토대를 일군 주역이자
세아의 미국 진출을 앞서 지휘해온 SeAH Steel America(이하 SSA)의 이병준 회장.
그가 세아와 함께해온 지난 58년의 시간을 따라가본다.



<이병준 회장 연혁>



해암 회장님은 기골이 강대하고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초지일관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젊은 혈기에 경솔한 의견도 많이 내었을 텐데 그것조차 귀담아 들어주셨지요.

- 세아 50년사 인터뷰 내용 중



위 : 이병준 회장과 이복형 여사의 연애시절
아래 : 해암과 공군장교 재임 당시 이병준 회장

운명같은 만남, 반세기 인연의 시작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는 오랜 인연은 이병준 회장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관리 장교로 재임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다. 창업회장인 해암과 그는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사위로 처음 마주했다.

“남색 양복바지만 여러 벌 갖고 계셨습니다. 바지가 해지더라도 남색 상의에 맞춰 입기 위해서였지요.”

이병준 회장은 해암에 대해 ‘매사에 실용적이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라고 기억한다.

또한 해암은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단순화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고위 공무원을 상대할 때도 ‘세금을 걷는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단순화하며 거침없이 본인의 의사를 전하곤 했다.

큰 목소리와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표되는 해암의 카리스마와 검소하고 인정 많은 성품에 경외심을 느낀 이병준 회장은 해덕철강상사 입사를 결심했다. 당시 이병준 회장의 서울대학교 동기들 대부분은 경제 개발을 이끄는 핵심 멤버가 되거나 해외로 진출하여 기회를 잡았지만, 그는 해암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 해암을 도와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냉철함과 추진력의 시너지

1962년, 이병준 회장은 전역과 함께 해덕철강상사에서 지배인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해덕철강상사의 재고관리부터 사업 전망까지, 해암은 사위인 이병준 회장에게 다방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다. 해암이 젊은 장교의 말을 경청한 것은 그의 논리 정연함과 해박함에 수긍했기 때문이며, 공군에서 선진업무를 익힌 것에 후한 평가를 내린 데 있었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잿더미에 묻혀버린 상황이었다. 국가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도로, 항만, 공장 설립용 기자재나 건설자재 수입에 많은 외화를 쓰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병준 회장은 향후 국가가 수입 대체 산업을 투자, 육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해덕철강상사가 영위하던 유통업을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암도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한국으로 조관기를 재산 반입으로 들어오는 재일교포 소식이 들려왔다. 해암은 이를 놓치지 않고 조관기 매입을 추진하며 부산철관공업의 시초를 마련했다. 이병준 회장의 냉철한 판단력과 해암의 거침없는 추진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초석기업의 뜻을 실현하다

전쟁 이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직장에서 생활비를 벌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군인까지 포함해도 취업률이 겨우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직장을 만드는 것은 나라의 가난 극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이병준 회장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도 경제학이 개인을 위한 학문이 아닌 기업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경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의 뜻은 ‘초석기업’에 대한 해암의 생각과 일치했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포말기업이 아닌 나라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 부산철관공업의 창업 취지였다. 많은 일 자리를 창출하여 그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일자리를 통해 국가경제의 말단인 초석을 키우는 것이 초석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를 존속,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와 해암의 신념이었다.



위 : 해암의 가족과 이병준 회장
아래 : 이병준 회장 내외와故 이윤형 회장



위 : 전국 상품 전시회를 둘러보는 이병준 회장과 해암
아래 : 제11기 정기 주주총회(1970년)

당장에 야기된 제반 문제들을 요령
또는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서두르지 말고 슬기와 인내로 풀어가야 합니다.
큰 뜻과 구체적 구상이 함께하는
대기만성형일 때 큰 시련일지라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 1990년 9월 부산파이프 사보 기고문 중

회사의 연속성을 생각하다

“내 일생에 겪은 가난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한 내 모든 노력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 이제 자네가 이걸 맡아주게. 나는 관여 않겠으니, 앞으로 자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암은 이병준 회장에게 인감도장을 내밀며 이같이 말했다. 이병준 회장은 갑작스러운 해암의 결정에 놀란 한편 그 결정에 담긴 신뢰에 크게 감격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해암의 믿음에 최선을 다해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이 그의 마음에 자리잡았다.

1963년, 부산철관공업 상무로 이동한 이병준 회장은 곧바로 회사의 제도 및 체계 정립에 뛰어들었다. 그는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업무를

유기적으로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주요 보직자가 업무를 독점하고 후임을 양성하지 않으면 유사시 회사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병준 회장은 군대에서의 경험을 살려 작업 제도화를 추진했으며, ASTM, British Standard, German Standard, JIS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작성된 KS 규격을 도입했다.

이병준 회장이 주도한 관리 및 경영 체계의 정립은 타사에 앞서 품질 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1965년 부산 지역 최초 KS표시허가 획득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졌다. KS표시허가 획득은 얼마 후 국내 최초 강관 수출의 개가를 거두는 전기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국내외로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등 유무형의 성과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우려와 반대 딛고 단행한 기업공개

1968년,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병준 회장은 국가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회사도 성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부산철관공업의 자기 자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러나 해암은 수시로 ‘잠잘 때도 이자가 늘어난다’고 말할 만큼 남의 돈을 빌려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은행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이병준 회장과 해암이 고안해낸 방법은 기업공개로 통한 주식상장이었다. 당시만 해도 기업공개는 모험으로 여겨졌다. 어려움을 예상하는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기업공개 개념조차 일반화되어 있지 않던 1969년 5월 13일, 부산철관공업은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대담하게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공개기업의 선두에 섰다. 창업 9년만의 기업공개이자 부산지역 최초의 상장이었다. 이로써 부산철관공업은 투자 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식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국민 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해외 시장 개척의 사명을 안고

1974년 초, 당시 전무직을 맡고 있던 이병준 회장은 수출부 요원으로 북미 지역에 파견됐다. 수출은 물론 원가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이병준 회장과 수출부 요원들은 힘든 과정 속에서 경험을 축적하며 하나씩 수출 거점을 확보해나갔다. 이외에도 그는 LA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추진하며 미주 시장 개척에 앞장섰다.

1976년, 이병준 회장은 부산철관공업 부사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고객 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을 이끌어내겠다’는 꿈을 품은 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시장 정보 수집,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본사 업무 협조 등의 일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실수요자 및 강관 판매회사들에 대한 직거래 가능성 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법인 개편이 추진됐다. 1978년 8월 15일, 부산파이프는 본사 제품의 직수입 판매와 기타 여러 회사 제품에 대한 수출입 업무를 전담할 현지법인인 Pusan Pipe America(이하 PPA)를 설립했으며, 이병준 회장은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Pusan Pipe America 설립 무렵 미국의 수요가 방문



위 : 제1회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대상 수상 (1999년 3월 19일)
아래 : SSA 연례회의(2017년)

미국 대륙에서 이어가는 꿈

이병준 회장은 1985년 2월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회장 선출에 이어 9월에는 서부금속수입업자협회 (WCMIA) 이사로 선임되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한국 수출입 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9년 3월 1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모교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병준 회장은 이날 '제1회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었다. 관악대상은 서울대 졸업생 중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뜻 깊은 상이다.

이병준 회장은 1995년부터 재미(在美) 서울대 총동창회장장과 명예회장을 맡으며 990 페이지에 달하는 미주 회원 명단을 발간하는 등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90년 1월, 미국 내 파이프 유통 회사인 State Pipe & Supply 인수에 이어 이듬해 OCTG를 유통 및 판매하던 Panther (현 Pan Meridian Tubular)社를 인수한 PPA는 2005년 SeAH Steel America (SSA)로 이름을 바꾸고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2015년 10월에는 향후 발전 가능성과 투자 효과 및 브랜드 이미지도 약 등을 고려해 비즈니스 기반이 잘 조성된 어바인 지역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West Coast Spiral Pipe (WCSP) 공장을 준공하며 미국 시장 내 스파이럴 파이프 제조업체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자국산 기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WCSP 준공은 계열사인 WCP 판매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WCP 인수와 WCSP 준공은 사업가로서 이병준 회장의 거시적인 안목과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PPA (현 SSA)가 설립될 때만 해도 260여 개에 이르던 해외 지사들이 지금은 약 10개 정도만 남았다. 그나마 다른 지사들은 새로 생긴 기업으로 예전부터 활동해온 곳은 SSA가 유일하다. 최근 수요산업의 침체로 철강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서도 SSA는 꾸준히 눈에 띄는 실적을 내고 있다. 반세기 전, 포말기업이 아닌 초석기업을 꿈꾸던 그와 해암의 꿈이 지금 미국 대륙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State Pipe & Supply Rialto Warehouse 오픈 (2010년 4월)

MINI INTERVIEW

겸허한 자세로 더 크게 성장하는 세아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세아의 토대를 일군 주역이자 미국 진출의 선봉에 섰던 이병준 회장에게 우리 세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그가 서면으로 보내온 답변을 소개합니다.

세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세아인들이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건전한 재무구조와 품질 관리로 기업의 기본을 착실히 다져놓아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만과 자만한 마음을 항상 경계하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세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통상 압박, 중국산 철강 제품의 위협 등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럴 때 세아인은 어떻게 위기에 맞서야 할까요?

우리의 실력을 키우며 내실을 다지는 데 힘쓴다면 고객은 변함없이 우리 제품을 찾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아 고유의 장점인 '원칙을 지키는 것'에 충실하면 결국 그렇지 못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될 것입니다.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전수해나갈 미래 세아인에게 조언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덕망 있는 회사, 품 넓은 회사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단단하고 강한 철의 속성, 그 지속성을 지키면서도 참신한 시도를 거듭하고 문화 요소를 가미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겸허한 자세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의 모습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협력사, 관계사와 함께 더 크게 성장하는 품 넓은 세아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회장님께 세아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아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판단력을 갖춘 성인이 된 후 세아를 알았고,

이 회사와 함께 일생을 살면서 보람도 찾았습니다. 세아는 앞으로도 더 큰 보람을 거두고 싶은 곳입니다.

더 나아가 세아가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된다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비결은 '진심'

세아가족 사보 기자들의 만남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아 M&S 경영지원팀 김재홍 사원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업무뿐 아니라 기본적인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보다 전화를 걸고, 한 번 더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죠. 물론 먼저 다가가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저절로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소통의 영역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풀어나가려 합니다.



세아인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꿈이 어우러지는 소통채널,
<세아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사보를 통해 세아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끌어가는

각 사 사보 담당자들을 만나 그들만의 특별한 소통법을 들어봅니다.



귀로 듣기보다 마음으로 듣는

심청(心聽)

세아특수강 경영지원팀 류상우 대리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상사, 동료, 후배 등 상대에 따라 적절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사에게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언행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동료와는 서로 힘든 부분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후배 직원들에게 때로는 단호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선배라고 무게를 잡기보다 회사 생활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직장 내 소통을 위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자세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소통의 기본은 적시성과 정확성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다은 사원

세아베스틸에 근무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주 자주 연락하는 것이 긴밀한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소통의 기본은 적시성과 정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때 연락해야 소통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고,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정확한 피드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사보 일이나 기획 업무에 있어 타 부서 분들께 도움을 구할 일이 많을 텐데, 꾸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끝 자리를 외워둡니다

세아 L&S 재경기획팀 김진우 사원

주로 연락하는 분들의 전화번호 끝 자리를 외워두었다가 전화가 올 때는 번호면 미리 알아채고 먼저 인사를 건네죠. 간혹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그러면 민감한 업무나 긴급한 요청을 드릴 때도 일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거든요.



친자매 같은 친근하고 즐거운 소통

세아제강 인사팀 노송미 사원

사보 업무를 포함하여 부서 특성상 다른 팀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상대방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며 되도록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해요. 자료를 요청하거나 업무 협조를 부탁할 때도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편이죠. 무엇보다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세아제강은 여직원이 그리 많지 않지만, 타 부서 직원들과 자매처럼 지내며 즐거운 소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OMMUNICATION

#2 : 진정한 소통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 진정한 소통

소통은 무조건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학원 선생님의 화려한 언변보다 어눌한 할아버지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은 정답이나 논리보다 감성에 의존하는 존재이므로 말의 내용보다 감정이입이나 교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진정한 소통의 전제조건이 '마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가가는 마음으로

소통의 부재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서로가 바쁘다 보니 가족과 일주일 동안 대화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남보다 오히려 적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주히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동료와 말없이 지나치는 날도 많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과 동료, 이웃 사이에 벽이 둘러쳐져 있다.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

벽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웃음을 머금은 인사는 훌륭한 소통의 출발점이다. 웃음은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도 열게 하는 무언의 대화이다. 얼굴이 험상궂은 사람도 웃으면 순하게 보인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라는 속담처럼 미소 이런 표정은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칭찬 역시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소통의 묘약이다. 칭찬은 애정이고 관심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표현으로 칭찬을 달가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입에 발린 칭찬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내뱉는 칭찬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마음과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려는 관심, 그리고 이를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하는 세련된 매너가 필요하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은 다른 사람의 말을 가까이 들으려는 노력을 수반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왕래하는 양방향 작용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만 소통이 안 된다고 답답해할 뿐, 자신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열려 있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는 돌아켜보지 않는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다. 들어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들리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나 행동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여유가 없을 때도 있다.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누는 일이 최종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부분과 관계없이 경청은 신뢰감을 쌓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청이며, 이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받아들인다. 그 필터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 신념 등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필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말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 어려운 본질적 이유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할 때 차이가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결국 소통은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만일 다름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하려고 한다면 소통은 단절되고 만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려면 상대방과 내가 다른 입장과 역할, 그리고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개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마음과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려는 관심,
그리고 이를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하는
세련된 매너가 필요하다.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마음이자 상대방을 나의 인맥으로 만들어 도움을 얻어보려는 알뜰한 속내로는 얻을 수 없는 인간관계의 진수이다.

소통에 있어서 화술은 요긴하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도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진실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없는 말은 아무리 유창하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말과 글은 소통을 하는 수단으로만 쓰여야 할 뿐, 주(主)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과 글로 소통하려 한다면,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닫히게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은 한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그만큼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어떤 이에게는 소통이 2인 3각 경기처럼 불편할 수도 있다. 혼자 달려가면 더 빨리 목표지점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일이 마냥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사람은 사람의 숲에서 부대끼고 그 숲에서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말재주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대화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소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마음만 먹는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다. 준비할 것이라고는 '열린 마음' 단 하나다.



비올레타

여러분, 즐겨요
사랑의 기쁨은 한 순간
꽃이 피어나면 곧 지는 것 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

2018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유난히 사나웠던 동장군이 물러난 자리를 한결 상냥해진 바람이 채운다.
다시 봄이 왔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음악회가 열렸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지난 3월 13일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 음악회를 개최하며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봄밤을 수놓았다.

음악회로 만나는 네 번째 봄

여러 악기들의 음이 겹겹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듯, 켜켜이 해를 거듭하며 세아이운문화재단 음악회도 어느덧 세아의 봄을 여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2015년, 반드시 들어야 할 오페라 작품과 곡을 선정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이라는 타이틀로 관객들과 만난 후, 벌써 네 번째 맞이하는 봄이다.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할 만큼 오페라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故 이운형 회장의 마음을 담아 기획된 정기 음악회로, 한국 오페라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재단은 이날 초청된 관객들에게故 이운형 회장의 삶의 가치를 담은 도서 <철과 같은 마음으로>를 제공했다.

베르디의 명작들로 채워진 무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제5번 C# 단조 4악장'으로 음악회 1부의 막이 올랐다. 햇살 속에서 고요한 꿈을 꾸듯 현악기와 하프 연주가 잔잔하면서도 포근한 정취를 자아낸다. 이어 테너 김승직, 신현식, 김범진과 소프라노 라하영이 무대에 올라 아름답고 섬세한 감정을 담아 노래했다. 모두가 세아이운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인재들이고, 모두가 베르디의 주옥같은 가곡이다. 음악을 향해 내디뎠던 베르디의 첫걸음이 시간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처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통해 음악회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색다른 감각의 현대적 연출 선보여

2부 무대는 오페라의 제왕(帝王)으로 불리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로 꾸며졌다.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 여왕 비올레타와 시골 출신의 귀족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을 테마로 한 세계 3대 오페라이며, 한국에서는 '춘희(동백아가씨)'라는 이름으로 공연된 최초의 오페라 작품이기도 하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 세계적 고전을 현대적 연출 기법과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해 80분간의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선보였다. 특히 2막 2장 '우리는 마드리드에서 온 투우사' 장면에서는 그란데오페라합창단의 경쾌한 노래와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공연 무대를 LED 화면으로 구성하여 다채로운 영상을 통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 및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였다. LED 영상은 황홀한 사랑의 감정을 청명한 하늘 풍경으로, 사랑을 잃고 비탄에 잠긴 마음은 시들어가는 꽃의 모습으로 그려내며 관객의 몰입을 높였다.

수준 높은 무대 향한 찬사와 갈채

라 트라비아타 공연에서는 재단 후원 아티스트이자 오스트리아 린츠극장 주역으로 활동한 소프라노 이명주를 비롯해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테너 김지운, 바리톤 정승기가 출연하여 무대를 빛냈다. 특히 이명주는 어려운 고음과 기교를 요구하는 비올레타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다채로운 창법과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관객들에게 갈채를 받았다. 김지운 역시 사랑으로 기쁨을 얻고, 사랑에 고통받는 알프레도의 애끓는 심정을 객석에



고스란히 전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총 120분간의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한 이날 공연은 전 국립오페라단장 이소영이 연출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나라가 지휘를 맡았다.

향기로 피어나는 진실한 마음

라 트라비아타는 진실한 사랑은 우주의 맥박처럼 신비롭고 숭고한 것이라 노래한다. 사랑을 무의미하다고 여기며 쾌락만을 쫓던 비올레타를 어두운 과거와 지친 삶에서 구원한 것 역시 진실한 사랑이었다. 세아이운문화재단의 열정과 노력에도 오페라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다.

낮설고 어려운 장르의 예술이 아닌 친숙하고 편안한 문화로 다가서려는 진실한 마음이 녹아 있다. 이를 위해 세아이운문화재단은 다양한 클래식 공연의 기획과 개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술의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시 봄이다. 잠들었던 생명이 깨어나고 꽃들이 향기로 노래하는 봄이 다시 왔다. 음악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의 마음도 봄의 꽃 향기처럼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간다.



출중한 한국어 실력은 기본

멕시코 국적의 Raul Sanchez(라울 산체스), 중국 국적의 Jason Chai(차이즈신)과 Moxi Cheng(정목시), 인도네시아 국적의 Joanita Hadi Soesilo(조앤이타). 이들 네 명은 한국어 실력과 글로벌 마케팅 분야 업무 경력 등을 평가하는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과하며 글로벌 인턴 사원으로 채용됐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이들의 기본 직무 역량 체득 및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기존 구성원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스로 찾아내고 익히는 교육

글로벌 인턴 직원들은 세아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1주차 교육을 시작으로, 5주간 서울 본사의 조직과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테마별 미션을 수행했다. 테마별 미션 과정에서 글로벌 인턴 직원들은 각 부서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며 업무 역량을 습득하고 구성원들과 유대감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능동적 미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인턴 직원들은 스스로 알아낸 세아의 역사, 계열사, 시설에 대한 정보들로 미션 결과물을 도출하고, 국내 신입 인턴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을 소개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진행된 BEST SeAH 6기 현장실습 교육과 세아창원특수강 현장 학습에도 참여하며 현장에서 직접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한 경험도 함께했다. 테마별 미션과 현장 학습 종료 후에는 개별 토론을 통해 교육 효과를 중간 점검하는 Wrap up 시간이 운영됐다. 1박 2일간 워크숍을 통해 세아의 문화, 조직, 사람에 대해 각자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 세아인으로서의 비전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세아인들의 장인정신과 배려가 인상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기로 용강 현상이 기억에 납니다.”

차이즈신은 이렇게 말하며 현장 직원들이 작업 과정을 ‘예술품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며 자신의 일을 즐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독특한 술자리 문화를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며, 인턴 교육 기간 동안 역량도 확실히 키워 진정한 세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목시는 세아에 대해 ‘배려가 많은 회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거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어울려 일하는 모습이 중국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

조앤이타는 ‘한국은 13년간 살아온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창의력으로 세아의 글로벌 마인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라울 산체스 역시 글로벌 마케팅 업무의 경험을 쌓아 세아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일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글로벌 인턴 직원들은 현재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 글로벌마케팅팀에서 현업 실무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향후 그룹의 영업 / 마케팅 직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턴 평가를 거쳐 현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저마다 다른 국적의 글로벌 세아인 Global Challenge Program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외국인 인턴 직원 4인을 선발해 지난 1월 2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Yantai city, China



변화의 속도를 앞서가는 변화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글 :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총경리 이진오 이사

최근 5년 사이 중국의 GDP 성장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세를 넓히고 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곳곳에서 혁신의 바람이 부는 곳.

중국 연태에서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가

2년여 만에 <세아가족>에 소식을 전해왔다.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한국과 가깝고 생활 습관도 비슷한 곳

안녕하세요.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이하 ESY)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오입니다. 2015년 사보를 통해 ESY의 소식을 전했는데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지네요. 연태 지역은 한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언젠든 일이 있으면 한국에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생활 습관도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어 한국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지요. 현재 ESY에는 한국 주재원인 저와 공장을 관리하는 박준수 총감을 비롯하여 사무직 직원 17명, 현장직 근무자 39명까지 총 58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과, 체리 등 과일의 천국

이곳의 특산물들은 사과입니다. 그 밖에도 체리, 복숭아 등이 풍부한 이곳은 그야말로 과일의 천국이지요. 연태 지역이 위치한 산둥반도의 흙은 대부분 과일 재배에 좋은

마사토 토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태풍의 피해도 적어 과일 재배에는 최적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위(張裕) 포도주도 유명합니다. 장위는 동양 최대의 포도주 기업으로 이 일대에 대규모 포도 농원을 갖고 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되었으니 그 역사가 이미 120년이나 된 곳이지요.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은 박물관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극찬했다 하여 그 명성이 더 자자해졌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포도주를 수동으로 생산하는 전 과정을 미니어처로 표현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신선도 경치에 취해 머무는 평라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이 지역 관광지는 산둥성 평라이거(蓬萊閣, 봉래각)입니다. 1061년, 송나라 인종(仁宗)때 건립된 평라이거는 산둥반도 북부 보하이만(渤海灣, 발해만) 남쪽 기슭의 단야산(丹崖山) 꼭대기에



위치해 있으며 텡왕거(滕王閣, 등왕각), 웨양러우(岳陽樓, 악양루), 황허러우(黃鶴樓, 황학루)와 함께 중국 4대 명루(名樓)로 불립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신기루 현상이 자주 발생해 구름안개 사이로 누각과 정자, 도시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워 8명의 신선 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며 머물렀다 하여 팔선취주(八仙醉酒)라 이름 붙인 조각상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조선 경기 침체에도 슬기롭게 대처

중국은 정부 주도의 국영 조선소 성장 전략으로 지난 3~4년간 여러 조선소를 합병·정리하여 조선소 대규모화와 조직 정비, 인력 감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선진화와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LNG/LPG선 등의 수주전 참여뿐만 아니라 크루즈선도 수주하고 있어 한국 조선산업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SY도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조선 경기 침체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군을 재선정한 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중국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화학운반선 건조 조선소에 고품질 한국산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장 발판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해 지난해 철강 가격이 크게 오르며, ESY가 생산하는 FCW (Flux Cored Wire)의 제조 원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Y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다양한 구매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제조 원가를 낮추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 개선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DSII81-K2, DSII81-HS 및 Arcaloy 시리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선급 인증을 완료하고,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효율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중국 내 판매를 ESAB China에 위탁하였으며 ESY는 품질, 생산성, 원가 경쟁력에 조금 더 집중하고 해외 지역 수출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전년 대비 40% 가량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지만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반드시 수익성 향상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아울러 ESY는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우선순위로 하여 중국, 한국, 일본 및 글로벌 시장에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기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세아씨엠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은상 수상 TF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승리를 위해 0.01초라도 기록을 끌어올리려 혼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온 국민에게 짜릿함과 감동을 선물했다. 그리고 여기, 세아씨엠에도 기록 경신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어제의 기록을 새롭게 바꾸며 더 나은 오늘, 더 멋진 미래를 여는 사람들.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은상 수상에 빛나는 9명의 세아인을 만나본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서로의 믿음

지난해 세아씨엠은 CGL(용융아연도금강판)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역대 최고의 수율을 달성했다. 설비의 가동률과 생산량이 향상됐고, 불량률도 현저히 줄었다. CGL 공정의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신기록이 기록됐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차츰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 믿음들이 모여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의 비결을 묻자 생산팀 이선구 팀장이 이렇게 답한다. 이선구 팀장을 필두로 생산팀 오세연 직장, 마성국, 양충식, 신승민 조장과 장훈 대리, 설비팀의 박영신 부장, 박성만 과장, 김보건 계장까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똘똘 뭉친 9명의 팀원들은 올해 초 신년회의에서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은상 수상의 영예도 거머쥐었다. 세아제강에서 분사한 후, 세아씨엠의 이름으로 수상한 첫 세아업적상이다.

문제를 찾아내고 답을 구하는 해결사들

이선구 팀장이 아연도금강판 기술분회에 참석한 것이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 타사의 실적 및 생산지표를 확인하며

경쟁력을 높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졌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법. 로스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강판의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문제,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아연이 고르게 도포되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 항목으로 선정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도금 두께를 결정하는 에어 나이프 설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에어 분사 부위에 불필요한 아연 부착물을 공기압으로 제거하는 클리너를 설치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부착물을 일일이 긁어내어 제거하던 방식에 비해 작업 안전성과 효율이 높아졌다. 제품 표면에 얼룩덜룩한 줄무늬가 생기던 문제도 해결됐다.

라인의 시작과 끝 부분에 회전롤을 설치하여 마찰로 인한 스크래치를 최대한 줄였다. 코일 형태로 강판을 포장하기 전까지 생산된 제품을 저장하는 설비인 루퍼 상단에는 슬라이딩 커버를 설치하여 이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했다.

이 밖에도 전체 CGL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불량으로 인해 버려지는 부분을 줄여나갔다. 우수한 표면 품질에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다.





돌아보면 험난했던 레이스

지난해 7월, 제품 표면에 일정한 밝기를 부여하는 설비인 SPM (Skin Pass Mill) 공정에 문제가 생겼다. 제품을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균일하지 않아 강판의 모서리 부분이 나뉘가지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현상이 일주일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 이로 인해 그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지표들이 점점 하락했다. 팀원들은 사나흘간 퇴근도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결국 가동을 멈추고 설비의 표준을 재설정하는 초강수를 두며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선구 팀장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다.

불량의 원인을 찾지 못해 납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마음이 쏠리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던 날은 이때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잘 닦여진 레이스라기보다 곳곳에 위기가 복병처럼 등장하는 미로와 같았다. 기대한 만큼의 설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피로가 극에 달했던 날도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설비 제작업체를 방문하는 길에 폭설로 고생했던 기억도 있다. 잠시 의욕을 잃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감정이 부딪히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씩 돌파해나갔다.

같은 길을 걷는 ONE TEAM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ONE TEAM’이라는 신념과 열정이 성과를 달성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두의 단결된 마음’이라고 박성만 과장이 힘주어 말한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보태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이를 실행해보며 빠르게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같이 고민하고, 힘들 때 등을 토닥이며 응원해주는 동료의 항상 옆에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승민 조장도 이렇게 말하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 멈추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김보건 계장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다. 그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전한다.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기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양충식 조장의 이야기도, 성과의 비결로 ‘긴밀한 의사소통과 배려하는 자세’를 꼽는 장훈 대리의 이야기도 이들의 동료애가 얼마나 끈끈한지, 그 끈끈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말해준다.

기록을 바꾸는 기록을 만들 것

기록은 기록으로 깨어지는 것. 세아업적상 은상도 수상했고, 2017년 세아씨엠 최고 라인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지만 팀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 다시 한번 모든 지표에서 신기록을 달성해 세아업적상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겠

습니다.”

이선구 팀장이 이렇게 말하며 반 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한다. 박영신 부장도 ‘숨어있는 로스를 찾아내고 개선하여 선두 업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오세연 팀장 역시 ‘끊임없는 개선 활동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한다.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1등 경쟁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지는 이미 갖춰져 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료가 있으니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 어느새 흑독했던 꽃셋 추위마저 물러가고, 힘껏 달리기에는 좋은 계절이 왔다. 이제 종전의 기록을 경신하며 새롭게 질주할 일만 남았다.





사람 좋은 포항 사나이

세아제강 포항공장 생산1팀 송상열 팀장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불혹이면 삶의 궤적이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는 뜻일 것이다.
올해 나이 쉰 넷, 세아제강 포항공장 생산1팀 송상열 팀장의 얼굴에도
세아와 함께해온 지난 31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된 인연

굵고 짙은 눈썹 아래로 선해 보이는 두 눈, 수줍은 미소를 따라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눈가 주름이 예전부터 알고 지낸 듯
친근한 느낌을 준다. 부드러운 음색은 경상도 남자가
죄다 무뚝뚝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자기 고집이나 욕심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만 같은 사람,
누구에게나 허물없이 다가설 것 같은 인상의 송상열 팀장.
그가 세아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순간을 회상한다.
“국민학교 6학년 때였어요. 부산 감만동에 있는 누나 집에 왔다가
부산파이프 반장으로 근무하던 매형을 따라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지요.”
강관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그저 신기했다.
화려하게 튀어 오르는 용접 불꽃은 어린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나도 어른이 되면 매형처럼 부산파이프에서 일해야지’라는
꿈이 소년의 마음에 자리잡았다.
물론 다른 꿈도 있었다. 화학 박사가 되고픈 시절도 있었다.
고등학교도 화학과를 전공했고, 화학분석기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그래도 운명이었을까? 어린 시절 용접 불꽃에 매료되었던 소년은
벌써 31년째 세아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터줏대감

1987년 11월, 그는 스물 셋의 나이로
부산파이프에 입사하여 소경1공장에 배속됐다.
처음 맡은 일은 조관 공정을 마친 파이프의
양 끝을 매끄럽게 절삭하는 먼치기 보조 업무였다.
1996년부터는 용접 결함을 검출하는 On UT 업무와
각 규격별 소재를 관의 형태로 구부려 성형하고,
강관 내외면의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다듬는
업셋트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3년 전문직 팀장직을 맡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는 줄곧 이곳 포항공장 소경1공장에서 일해왔다.
업셋트 업무만 해도 22년을 수행했으니,
입사 당시 다짐했던 '용접 강관 제조기술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셈이다.

30년 넘게 일해온 삶의 터전이
전자회사를 방불케 할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삶의 터전에서 혁신의 명소로

포항공장 소경1공장이 2013년 본격적으로 혁신 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31일 전 구역 명소 인증을 완료하고
제2준공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송 팀장도 명소 활동 프로젝트의 TF팀원으로서
공장의 재탄생에 크게 기여하며
세아업적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0년 넘게 일해온 삶의 터전이 전자회사를
방불케 할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송 팀장은 벅찬 감동을 느꼈다.

“오랜 시간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라 종종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송 팀장은 당시 심정을 털어놓는다.



포항 사나이의 아낌없는 후배 사랑

포항에서 나고 자란 송 팀장에게 바다는 놀이터처럼
편안한 곳. 잠수복과 칼 하나면 제주 해녀 부럼지 않은
숨씨로 전복, 소라, 돌문어 등을 채취할 수 있다.
그렇게 걷어 올린 해산물을 지인과 동료들과 나누는 것
역시 그의 행복 중 하나라고 한다.

“컵에 담긴 물이 적을 때는 한 모금만 마셔도
없어지지만,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 번 마실 수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물잔처럼 후배들이 기량을 쌓고
내실을 채웠으면 합니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그의 조언에서도 아낌없는 선배의
정이 묻어난다.

‘세아는 제 전부’라며 정년퇴직 할 때까지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최대한 알려주고 싶다는
송상열 팀장. 미소 띤 그의 눈빛이 봄 햇살 속에서
반짝인다.

황홀한 봄의 품에 안겨 100년 전 진해 속으로 창원 진해

수채화 같은 봄 풍경 한번 만끽하지 못하고
이 계절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
이런저런 핑계로 여행을 미뤘었다면
이번만큼은 무작정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화사한 봄기운도 즐기고, 100년 된 거리와
건축물들 사이를 거닐어본다면 더욱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것이다. 오늘은 세아의
여러 사업장들이 위치해있는 창원시,
그중에서도 진해로 상춘객을 안내한다.

📍 벚꽃 길로 유명한 안민도로



봄바람 타고 살~랑~

벚꽃의 고향인 진해는 2010년부터 창원시 진해구로 분리된다. 흔히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이라고 부르는 세 곳이 모여 창원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KTX(창원중앙역)나 버스를 타고 되지만, 이번에는 김해공항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해에서 차로 40분이면 진해에 도착한다. 여행의 첫 시작점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진해 드림로드'이다. 총 24.3km로 이어지는 4개 코스 중 2코스인 천자봉 해오름길이 길도

평탄하고 풍경도 다채로우며, 탁 트인 진해 앞바다를 바라보고 걸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곳곳에 출입로가 있어 마음에 드는 일부 구간만 걸어도 된다.

꽃구경과 바다 조망을 동시에

2코스는 벚꽃 길로 유명한 안민도로에서 시작한다. 데크길 양옆을 화려한 봄의 나무들이 호위하듯 감싸고 있어 상춘객의 마음을 간질인다. 곧이어 황톳길이 나오는데, 편백나무숲 안에 조성돼있어 쾌적함을 더한다. 아찔하리만큼 농도 짙은

피톤치드 향은 미세먼지에 치친 현대인에게 더없이 반가운 선물이다.

길의 후반부로 가면 탁 트인 진해 앞바다가 펼쳐진다. 호수처럼 고요한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 그 사이에 배들이 정박해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풍경화다.

이 밖에도 진해 드림로드와 연결되어 있는 진해 드림파크, 사시사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진해 해양공원도 가볼 만하다.

타임캡슐을 타고

100년 전 진해를 걷다

봄기운을 한껏 충전했다면 이제 '근대문화역사길'로 가보자. 1900년대 초반 일제는 천혜의 요새 지형을 갖춘 진해 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일본인들이 살기 위한 계획도시를 건설했다. 해방 이후 이곳에 대한민국 해군이 주둔하면서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일제가 설계한 독특한 도로망을 비롯해 일본식 전통가옥, 상가, 우체국 등 1900년대 초반에 지어 올린 건축물들의 원형이 비교적 생생히 보존되어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 진해에 불시 착한 묘한 기분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종원로터리 일대는 둥근 잔디밭을 중심으로 8개의 길이 뻗어있는 동심방사형 도시계획 기법으로 건설됐는데, 이것은 20세기 초반 세계적으로 유행한 건축 기법이기도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모양이라는 설도 있다.

일제시대 전후

도로망과 건축물이 그대로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근대문화유산들이 의미 있지만,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곳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최상류층의 사택이었던 '선학공당집', 6채의 일본식 2층 목조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장옥(長屋) 거리', 해방 이후 진해 문화의 중심지였던 '문화공간 흑백', 1912년에 준공된 러시아풍의 진해우체국, 백범 김구 선생 친필 시비, 군항마을역사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왕산 공원에 있는 진해탑 꼭대기에 올라가 진해 시가지와 바다를 360도 파노라마 시야로 조망할 수 있는 코스도 놓치면 아쉽다.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은 많지만, 100년 전 한국 근대사의 흔적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곳은 드물다. 진해에서 모처럼 황홀한 봄도 만끽하고 근대문화유산도 둘러본다면 여행의 잔상이 유난히 오래도록 남는 추억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eAH in CHANGWON

세아창원특수강 창원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055-269-6114

세아엔지니어링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055-287-2868

세아메탈 본사·공장·부산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80
055-266-8777

세아에샵 본사·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62번길 56
055-289-8111

세아제강 창원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80
055-278-2222



집안에 봄을 들여놓다 선인장 가드닝 체험

세아 L&S 판매기획팀 이지훈 과장 가족



대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계절, 봄이 돌아왔다.
나뭇가지의 초록이 기지개를 켜고, 어여쁜 꽃들이 차례로 피어난다.
꽃샘추위마저 물러간 따뜻한 주말, 세아 L&S 판매기획팀 이지훈 과장 가족이
봄을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드닝 체험에 나섰다.

결혼 4,000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체험

화분을 하나 들여놓은 것 만으로도 향기로운 봄이 집안으로 들어온다. 홈 가드닝은 공간에 화사함과 생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습도 조절 및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봄철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식물이라는 ‘생명체’를 어루만지는 과정은 심리적 안정과 기분 전환에도 좋다.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한옥 꽃집, 아티크의 문을 열며 이지훈 과장과 아내 김보람 씨, 하음이와 하율이가 차례로 들어선다. 응축된 꽃 향기와 식물의 초록빛 기운이 이들을 향긋하게 맞이한다.

가족이 가드닝 체험에 나선 이 날은 이지훈 과장과 보람 씨가 결혼한 지 3,999일째 날. 이지훈 과장은 기념적인 4,000일을 하루 앞두고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어 가드닝 체험을 신청했다.

성격도 제각각, 남다른 재능을 지닌 남매

앞치마를 두르고 흙과 식물이 준비된 작업대 앞에 앉자 수업이 시작된다.

“물을 잘 주는 것만큼이나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화분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기초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열두 살 큰딸 하음이는 눈을 반짝이며 조용히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한다. 반면 하율은 폭풍 질문을 쏟아낸다. 각종 가드닝 도구들에 대해 묻는가 하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끊이지 않는다. 선생님의 질문에 가장 열성적으로 대답한다. 호기심 왕성한 아홉 살 사내아이는 나름의 방식으로 진지하게 수업에 임한다. 얼핏 봐도 사뭇 다른 성격의 두 아이. 하음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살짝 새초롬해졌지만 워낙 마음이 착하고 가족들을 세심하게 잘 챙긴다고 한다. 각종 미술 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남다른 미술 감각을 지닌 하음이는 요즘 아이들 그룹 워너원에 푹 빠져있다.

하율은 세 살 터울의 누나와 비슷할 정도로 키가 큰 편. 작년 인천 서구 태권도 대회에서 개인 은메달, 단체 금메달도 거머쥔 태권도 미래 인재다.

“가끔씩 아들과 대련을 하는데, 이제는 한 대만 맞아도 아파요. 지난 1월에는 2품으로 승급했는데, 4단까지 계속 시켜볼까 합니다. 혹시 알아요?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가 될지?”
아빠의 엄살에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아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난다.





비옥한 토양,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게

세상의 엄마는 모두 요리사이지만, 보람 씨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진짜 실력자. 남편과 아이들이 출출해하면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똑딱똑딱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낸다. “하음이, 하울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자라도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가족이 됐으면 해요.”

엄마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아빠 마음도 마찬가지다. 두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고, 자립심을 키워주려 노력한다는 이지훈 과장.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따뜻한 햇살, 비옥한 토양이 되고픈 이 세상 여느 부모 마음과 다르지 않다.

흰 모래와 검은 돌 등을 이용하여 화분의 겉흙을 덮어주고, 선인장마다 이름표를 꽂아주면 오늘의 체험 완성.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잊지 않고 물을 주면 선인장을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체험을 마친 후 꽃집을 나서는 이지훈 과장 가족, 네 사람의 얼굴에 봄처럼 환한 미소가 어려있다.

흙 짝 자라 제 할 일도 척척

선인장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크는 가드닝 아이템. 초보 가드너로 나선 이지훈 과장 가족도 선인장을 심어보기로 한다.

먼저 화분의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배수망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화분 구멍을 막아준다. 큰 돌, 작은 돌, 가는 흙을 차례로 담아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배수층을 형성한 후, 모종 화분에서 꺼낸 선인장을 옮겨 심는다. 이때 선인장의 뿌리가 잘 퍼지도록 적당한 크기의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 뿌리가 제대로 자리잡을 공간을 확보해야 수분과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음이와 하울이는 앙증맞은 크기의 선인장 모종을 각자 고른 후, 알맞은 크기인 지 토분에 대어본다.

이지훈 과장과 보람 씨는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선인장의 어울림을 고려하며 양철 화분에 조심스레 선인장을 옮겨 담는다.

이제 배양토를 채울 차례. 흙을 퍼 담은 후 뽀족한 막대로 콕콕 찌거나 손으로 콕콕 눌러 배양토의 밀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 화분에 흙을 연신 퍼 담고 누르는 남매의 고사리손이 분주해진다.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예전엔 캠핑을 가면 텐트 설치를 혼자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죠.”

잘 심어놓으면 쑥쑥 자라는 선인장 화분처럼, 어느새 흙 짝 자라 제 할 일을 척척 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부모 눈에는 그저 고맙고 대견할 따름이다.



📍 아티크 : 서울 용산구 원효로 80길 7 T.010-4849-6363

거북목과 오십견 탈출을 위한 목·어깨 운동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늘 목이나 어깨가 빠근하고 무겁습니다.
봄은 왔는데 여전히 기운 없고 나른하신가요?
세아 피트니스 센터 이흥표 매니저가 알려주는
스트레칭 동작과 함께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보세요.



목·어깨 운동 왜 필요할까요?

불안정한 자세와 잘못된 생활 습관은 거북목, 오십견 등의 원인이 되며,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자주 두통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목과 어깨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작업이나 운동에 필요한 추진력
이 약해지며, 특히 오십견의 경우 어깨가 굳으면서 팔과 뒷목까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을 통해 뼈와 근육의 긴장
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 장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분
- ☑ 등이 구부정한 분
- ☑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거나 높은 베개를 베는 분
- ☑ 선반 위에 놓인 물건을 잡기 힘든 분
- ☑ 만세 자세나 뒷짐지는 자세가 어려운 분
- ☑ 평소 한쪽으로만 가방을 메는 습관이 있는 분



이흥표 매니저는 운동처방 1급,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2급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로 전국체
전 복싱 종목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1997년 춘계전국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서 -60kg
급 3위, 2000년 YMCA 보디빌딩대회 -65kg급 2
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세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세
아인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뭉친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고
거북목과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립니다.

NECK STRENGTHENING EXERCISE 자세를 바르게 교정시켜주는 목 근력 강화 운동



- ① 깍지 낀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는 앞쪽으로
손은 뒤쪽으로 10초간 힘주어 밀니다.
- ② 깍지 낀 두 손을 뒤통수에 대고
머리는 뒤쪽으로, 두 손은 앞쪽으로
10초간 힘주어 밀니다.
- ③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받쳐 머리와
손바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주어 밀니다.
왼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SIDE LATERAL RAISE 어깨 측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세



- 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주먹 친 손을
허벅지 옆에 내려놓습니다.
- ②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며 어깨와
평행할 때까지 팔을 들어올립니다.
- ③ 천천히 저항을 느끼며 팔을 내려줍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ELBOW CURLS 어깨 유연성 및 근력을 길러주는 엘보우 컬 자세



- ① 의자에 앉은 상태로 양팔을 벌린 후
양손을 귀에 붙여줍니다.
- ② 팔꿈치가 마주보도록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 ③ 팔꿈치가 멀어지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룹뉴스



나눔세아 캠페인 활동 성료

지난 연말, 세아그룹은 두혈종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한이를 위해 '나눔세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약 2달에 걸친 모금활동을 통해 24,916,000원이 모였으며, 이는 한이의 수술비 및 의료비, 보행기/유아식탁의자 구입비에 사용되었다. 모금액 중 일부는 한이와 같이 중증 의료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 2명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 후원금은 홀트에서 양육하는 다른 아동들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아제강



공정거래 교육 실시

3월 20일, 세아제강은 본사에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지방 사업장 화상연결을 영업부문 전 임직원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상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영업에 관련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종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강화되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세아베스틸



2017년 올해의 베스틸 우수사원 해외여행

2월 5일~9일까지 베트남에서 진행된 '2017년 올해의 베스틸 우수사원 해외여행'에 수상자 및 가족 28명이 참여했다. 이번 해외여행은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함께 애써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수상자 가족들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를 시작으로 하롱베이, 세계 자연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쩡안을 관광하고 수상 인형극을 관람하는 등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세아창원특수강



창립 52주년 기념식 개최

3월 16일, 세아창원특수강은 사무동 강당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고객사(가나스틸, 동양특수강), 공급사(동부스틸), 협력사(트윈텍)에 대한 감사패 수여, 18명의 모범직원 포상 및 비플루티스트 앙상블의 플루트와 가야금 공연이 진행됐다. 이지용 대표는 창립기념사를 통해 突出增長, 爭天下(갈고 닦은 힘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시장에 우뚝 서자)를 위해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세아씨엠



2018 모스빌드 박람회 참가

4월 4일~8일, 세아씨엠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8 모스빌드'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7월 세아제강에서 분할해 컬러강판 전문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 해외 첫 공식 행보이다. 세아씨엠은 모스빌드 전시회 기간 동안 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 유력 바이어들과의 정보를 교류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세아메탈



2017 Supplier of the year 수상

1월 24일, 세아메탈 원주공장은 만도에서 선장하는 '2017 Supplier of the year'을 수상하였다. 본 시상에서 세아메탈은 조항장치의 핵심 부품인 랙바와 피니언샤프트를 만도에 공급하면서, 혁신적인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사우동정

세아제강	
입사	
최진원	창원공장 생산팀
김유창	군산공장 생산팀
김상현	서울영업1팀
권상완	서울영업2팀
지중우	서울영업3팀
신중민	수출2팀
김강일	회계팀
권오훈	회계팀
황준영	회계팀
김중윤	자금팀
최태림	STS내수팀
심민규	포항공장 연구개발팀
배성철	포항공장 연구개발팀
임심식	포항공장 연구개발팀
결혼	
최윤희	군산공장 품질경영팀
류성록	순천공장 품질경영팀
출산	
이재영	창원공장 생산팀
조의	
장정노	포항공장 생산1팀(모친)
권병기	포항공장(빙부)
세아베스틸	
결혼	
정의혁	공정연구센터
조의	
임병희	품질보증2팀(부친)
이광훈	품질보증2팀(모친)
조태중	에너지관리팀(모친)
이강배	대형압연팀(빙부)
이길준	연주팀(빙모)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양동현	기획팀
조진호	압연설비팀

출산	
민충기	영업2팀
김재환	가공팀
김수연	구매2팀
김지형	인재운영팀
조의	
김민곤	가공팀(부친)
이호일	3제강팀(부친)
김대환	설비지원팀(부친)
이동근	강관팀(모친)
강동우	압연설비팀(모친)
김형준	품질보증팀(빙모)
배한길	품질보증팀(빙부)
세아특수강	
입사	
최윤정	구매팀
김동기	경영지원팀
이호정	생산팀
결혼	
서종영	포항 생산팀
출산	
이맹상	충주 생산팀
정태경	포항 품질보증팀
최운학	포항 생산팀
손용화	부산영업소
세아씨엠	
입사	
조재경	가전영업팀
김병수	수출팀
김혜연	생산팀
김태훈	컬러건재영업팀
세아 FS	
입사	
노태호	평택공장(작업지원팀)
출산	
이영무	평택공장(생산팀)
공승찬	평택공장(제조기술팀)

세아 ESAB	
조의	
김경준	생산팀(부친)
김인수	생산팀(부친)
세아메탈	
입사	
이도원	기술개발팀
결혼	
민지홍	업무지원팀
세아 M&S	
입사	
박용준	재경팀
강원철	설비관리팀
세아 L&S	
입사	
김예슬	강관영업1팀
황민우	철근영업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박세운	개발2팀
노호윤	개발3팀
강형록	서비스팀
김정현	영업팀
최재준	영업팀
김경호	생산팀
출산	
최 화	영업팀
조의	
이상혁	생산팀(빙부)

독자엽서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다음 호 독자 의견에 선정되신 분께는 산뜻한 향기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선인장 석고 방향제를 선물해 드립니다.



묵직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의 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커버 스토리를 읽고 표지 이미지가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더 강하게 단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철강 제품의 모습이 세아
와 참 많이 닮아 보입니다. 올해도 세아인 모두 파이팅입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 박세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18년 사보에서 글로벌 세아의 모습과 화목
한 가정, 세심하게 직원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따뜻한 세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다양하고 즐거운 세아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서지수



향기뿜뿜 선인장 석고 방향제
(화분 색상 및 향 오일 랜덤 발송)



사보 크기가 작아져서 더 보기 좋았습니다. 작아진 새해 사보
는 손에 잡기에도 편하고, 내용도 한눈에 들어오네요. 앞으로
도 더 재미있는 내용들과 다양한 디자인 기대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이동환



올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마침 헬스케어 코너가 생겨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운동 동작들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정지용

<세아가족> 사보기자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창원)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부산)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군산)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서울)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서울)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여환진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대전)
황미라	세아제강 부산영업1팀(부산)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이상기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포항)
이다은	세아베스틸 기획팀(서울)	고소영	세아 FS 인사기획팀(서울)	박솔향	세아네트웍스 인사총무팀(서울)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서울)	정재원	세아 ESAB 경영전략팀(창원)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 02-6970-0093